

## 본격적인 출하증가로 돈가는 바닥세로 진입할 듯



강 세 원 이사  
((주)퓨리나코리아)



다음달에는 심리적  
기대선인 2,000원대가 무  
너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IMF위기를 극복한다라는 장기적  
인 경영안목이 절대적으로 필요  
한 시기라 할 수 있다.

2,100~2,200원대까지 육박한 돈가를 지지할 시장요인이 별로 보이지 않고 있어 11월에는 바닥세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의 사료판매동향에 의한 공급추세를 보면 정부의 최근 사육두수 발표만큼 크게 늘어난 수준은 아니지만 본격적인 비육돈 출하 증가가 예고되고 있는 반면 수요 및 수출은 이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농장의 출하 대기돈에 대한 산지매매가 벌써부터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현상이 일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출하체중도 크게 하향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출업체에 대한 돼지비축자금이 투입되고 있고 국내에 이미 여러 일본의 돈육수입회사가 대거 진출하여 돈육수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러한 시장추세를 말미암아 오히려 수출원료돈은 부족한 현상이 일고 있어 수출확대를 통한 돈가회복도 당장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다음달에는 심리적 기대선인 2,000원대가 무너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이미 예상된 추세인만큼 농장에서는 조기출하라는 단기적 대응보다는 농장성적 향상을 통한 생산비절감으로 개방화, IMF위기를 극복한다라는 장기적인 경영안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다행히 최근 국제 사료원료시세가 계속 안정적인 추세를 보여 향후 생산비절감에 많이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등 돈가 불안속에서도 희망적인 시장동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養豚**

# 11월 평균 지육단가는 2,100원/kg 수준으로 형성

최근의 돈가추이는 생산측면 보다는 소비 관점에서 유의해야 할 것이다. 예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년 11월의 돈가는 돼지 출하량이 증가하는데 반해 돈육 소비량은 감소하는 정기적인 사이클이 형성되어 연중 최저 돈가를 나타내는데 올해도 최저 돈가가 예상된다.

11월 돈가는 2,100원/kg 수준으로 전망된다.

소비 관점에서 살펴보면 최대 관심사는 수출로 귀결될 것이다. 일본은 연말 성수기를 대비하여 11월 중순까지 수입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에 따라 11월 중순이후 수출이 감소한다면 돈가 하락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돈육 부위중 후지 수출이 지속된다면 돈가 하락폭은 크지 않을 것이다.

최근 삼겹살을 제외한 다른 부위의 판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가공업체의 채산성은 좋은 상태이고 정부의 적절한 돈가 안정 대책이 있을 것인 바, 큰폭의 돈가하락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돈가 하락요인으로는 수입 삼겹의 재고 과다로(추정 재고 : 14,000톤) 덤핑판매가 성행하게 될 경우와 국내산 삼겹살의 재고 부담이 가공업체에 가중될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원료돈을 구매하는 가공업체의 지육 구매요율이 차별화되고 있음을 농가들은 주의깊게 봐야 할 부분이다. 즉, 지육률이 높고 품질이 좋은 원료돈은 평균 구매요율보다 3%~4% 높게 구매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는 돈가 상승시 농가에게 큰 메리트가 작용할 것이다. 현 시점에서는 돈가하락 시기가 있으면 상승할 시기도 있음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한 시점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정책보다 항상 준비하는 중·장기 대책수립이 요구된다. 돈가 하락이 정기적인 사이클로 나타나는 최근의 추이를 보고 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면 누가 양돈 사업을 지속할 것인가. 또한 양돈 농가도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 중·장기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養豚**



최 동 수 팀장  
(제일제당 식품본부)



**지육률이 높고 품질  
이 좋은 원료돈은 평균 구매  
요율보다 3%~4% 높게 구매  
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는 돈가  
상승시 농가에게 큰 메리트가 작  
용할 것이다.**